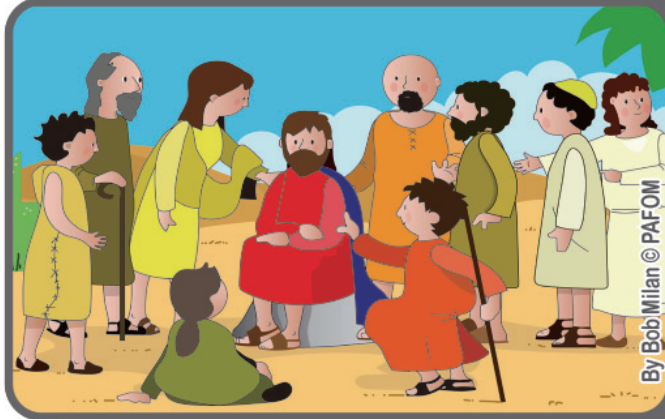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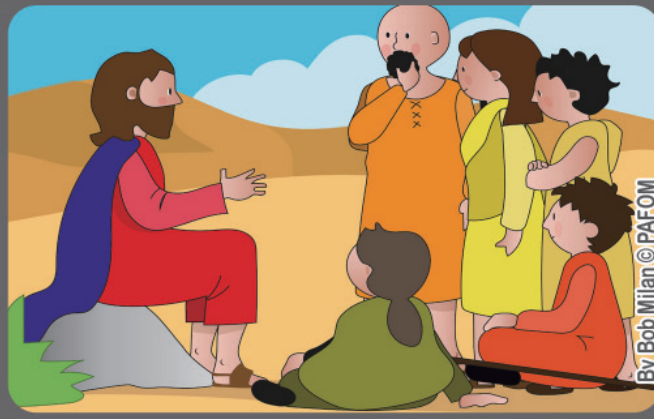
잘못을 용서해 주세요!



“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.”
(루카 6, 36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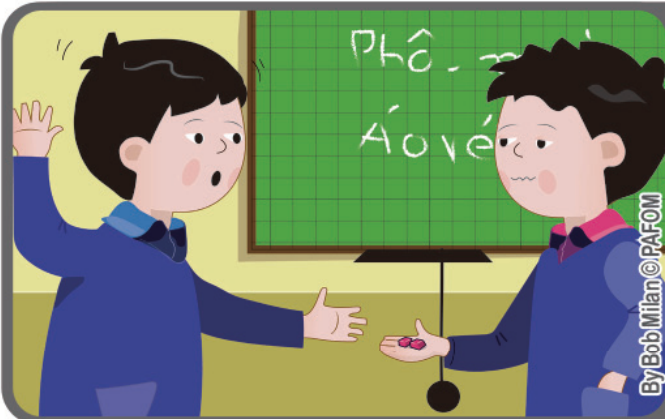
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어요.



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며, 하느님 아버지처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



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주세요.(루카 6, 36-39 참조)



베트남에 살고 있는 바오로의 이야기입니다.

바오로는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는 두 조각으로 찢어진 지우개로 돌려주었어요.



친구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, 바오로는 마음이 상했어요. 그렇지만 친구의 실수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.



다음날 바오로는 지우개를 잃은 한 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지우개 한 조각을 선물해 주었어요.